

다니엘서 - 백칠십육번

신적 계시와 최후의 각성: 다니엘의 환상에서 얻은 통찰

Jeff Pippenger

2024-04-06

다니엘서 10장에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에게 다니엘서의 완전한 해석을 제시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을 대표하며,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14만4천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14만4천은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보여 주듯 자신들이 흠어졌음을 깨닫고 깨어난다. 또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큰 시험이 곧 짐승의 우상 시험이며, 그것은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그리고 미국에서 일요일법으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난다. 그들은 2020년 7월 18일 그들에게 닥친 실망을 슬퍼하고 있으며, 그런 상태에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다니엘과 이사야에게서도 보듯, 그 환상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주 앞에서 자신들의 부패한 상태를 보게 하였고, 두 사람 모두 티끌에 엎드려 낮아졌다. 이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느냐는 물음을 듣고 자원하지만, 먼저 정결하게 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어 온 타는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떠나갔고 네 죄가 속죄되었느니라, 하였다.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기에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5-8.

이사야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보는 자를 그가 바라보는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울 같은 환상을 바라봄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이사야는 듣고도 듣지 못하며, 보고도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가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혹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사야 6:9, 10.

이사야는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오래 상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여, "얼마나 오래입니까?"라고 묻는다.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가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며, 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그 땅 한가운데 큰 황폐가 있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6:11, 12.

마지막 때 성경 예언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며, 일요일 법이라는 국가적 배도로 말미암아 국가적 파멸이 초래될 때 그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다니엘 11장 41절은 같은 장 16절에 의해 예표되어 있다. 41절에서는 '그 땅 한가운데에서의 큰 버림'이 '많은 이들이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수께서 지상 생애에서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이사야의 기별은, 이전의 언약 백성이 지나쳐 버림을 당할 때 그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인지하지 못하는 귀와 눈을 갖게 됨을 지적한다. 이사야의 기별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에 대한 마지막 호소를 대표하며, 그것은 일요일 법에서 끝나고, 그곳에서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진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나,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들은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들이다. 다니엘 11:41.

라오디게아에 마지막 부르심을 전할 책임이 이사야와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에서 세 번째로 만져졌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할 힘을 얻는다.

그때 다시 사람의 형상 같은 자가 와서 나를 만지고 나를 강하게 하며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말씀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니엘 10:18, 19.

다니엘은 10장에서 미가엘이 내려왔을 때 자신이 이해하게 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다. 이사야는 일요일 법령 때까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요일 법령 때 남은 무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내가 물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거주자 없이 황폐해지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다.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그 땅 한가운데가 크게 버려질 때까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십분의 일이 남을 것이며, 그것도 돌아왔다가 다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잎을 떨어뜨려도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테일나무와 참나무처럼, 그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 6:11-13.

땅 한가운데서 '큰 이탈'이 있을 때(일요일 법 때), '십분의 일'이 드러날 것이며 그 '실체'는 '거룩한 씨'이다. '십분의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은 '십일조'이다. 주님께는 일요일 법 때 '돌아온' '십일조'가 있을 것이다.

땅의 십일조는,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다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일조 중 얼마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며. 또 소떼나 양떼의 십일조에 관하여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마다 열째 것은 여호와께 거룩하니라. 레위기 27:30-32.

돌려 드리는 십분의 일은 주님께 거룩하며, 그것은 주님의 몫이다.

이는 여호와와 분깃이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기업 가운데 제비 뽑힌 몫이다. 신명기 32:9.

주일법 이전에 돌아온 자들은 첫 번째 실망을 겪은 자들로서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면 주님의 입, 곧 그분의 대변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을 찾아 내가 그것을 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이는,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비웃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 때문에 나는 홀로 앉았으니,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끊임없고, 나의 상처는 낫지 않으며 치유되기를 거부하는가? 주께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가려내면, 네가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 대하여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우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악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며, 포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리라. 예레미야 15:16-21.

이사야의 증언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 곧 십분의 일은 먹혀야 할 것이었으니,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졌고, 그분의 말씀은 먹혀야 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이 될 자들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게 될 자들이었다. 예레미야는 "조롱하는 자들의 집회"에 앉지 않았으니, 이는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그가 이상을 보았을 때 "조롱하는 자들의 집회"가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짓말하셨다고 생각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손이 밀러파 역사에서 1844년 4월 19일의 첫 번째 실망과 마지막 날들에서 2020년 7월 18일의 첫 번째 실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가 "돌아오면" 그러하리라는 것이었고, 이사야의 구절에서는 그 "십분의 일"이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returns"하면, 그는 거룩한 이사야의 "tenth"에 속하고, 여호와와의 분깃이 되며, 그들 안에 "substance"가 있다. 히브리어 "substance"라는 말은 "pillar"를 뜻하며, "pillar"로 세워지는 것은 빌라델비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2, 13.

"기둥", 곧 그들의 "실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시기 때문이다.

깊은 낙담에 빠져 있던 때,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꿈을 꾸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한 성전을 보는 꿈을 꾸었다. 때가 끝날 때 그 성전에 피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었다. 바깥에서 각기 제 길로 다니던 무리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 구원의 방책이 교활한 속임수이며 사실 피할 만한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벽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려는 몇몇 사람들을 붙잡아 막기까지 했다.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 나는 군중이 흩어질 때까지, 혹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 수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너무 늦을까 두려워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다. 성전에 도달하려는 조바심에 나를 둘러싼 인파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개의치도 않았다. 성전에 들어서자, 거대한 성전이 하나의 거대한 기둥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고, 그 기둥에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흘리는 어린양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이 어린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멍들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다.

어린 양 바로 앞에는 높이 마련된 좌석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매우 행복해 보이는 무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비치는 듯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사들의 음악과도 같은 기쁨의 감사 찬송을 불렀다. 이들은 어린 양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 어떤 기쁜 사건을 즐거움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고,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수치심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듯했고, 그 어린양을 마주보기 위해 기둥을 돌아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성전이 흔들리며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무섭도록 찬란한 빛이 건물을 비추더니 곧 모든 것이 짙은 어둠에 잠겼다. 환한 빛과 함께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나는 밤의 고요한 공포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깨어났고, 방금까지 꿈을 꾸었다고 스스로를 거의 납득시킬 수가 없었다. 나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고, 주의 영은 나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증언, 제1권, 27.

되돌아오는 십분의 일 안에 있는 "실체"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다니엘은 기둥에 매달린 어린 양의 인과적 환상을 보았고, 그 어린 양이 곧 "기둥"이었다. 다니엘이 그 위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기둥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사야의 십분의 일도 마찬가지로 그들 안에 "실체"(기둥)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실체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가 "먹어야" 한다. 성전에 들어가 그 실체를 먹는 자들은, 그 땅에서 큰 버려짐이 있을 때, 일요일 법령 때 높이 들려지는 기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다른 양떼이다. "거룩한 씨," 곧 이사야의 실체는, 세상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돌아오는 그 십분의 일은, 일요일 법령 때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의 분리가 영원히 확정되고 그때 많은 이들이 무너지게 될 때, 악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무너진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악인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또한 포악한 자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을 것이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레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그치게 하리라. 그와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 열국 중에서 두려운 자들이 그 땅을 멸하러 올 것이며, 그들이 애굽을 대적하여 칼을 빼어 들고 그 땅을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리라. 내가 강들을 말리며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고, 타국인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황무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 30:10-12.

“열국의 무서운 자”는 북방 왕의 대리 군대이다. 일요일 법령 때에 세워지는 기호는 어리석은 처녀들, 곧 악한 처녀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며, 또한 열국의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건짐을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쟁점은, 이사야와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한이 모두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부터 돌아오는 십사만 사천의 부활과 권능 부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 곧 히데겔 강가에서 주어진 그 이상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내적 이상과 외적 이상을 모두 깨닫도록 됨과 동시에, 그 기별을 전하도록 강건하게 된다.

내부와 외부에 관한 기별은 10절에 나오는 머리, 곧 “요새”에 대한 예언적 정의와 함께 결합되며, 이는 현재 푸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한다. 그 머리를 식별하는 그 열쇠는 내부적 적용과 외부적 적용을 가지며, 그 전쟁의 시작은 두 머리 모두가 예언의 주제가 되는 시기를 표시한다. 러시아로서의 그 요새 또는 머리는 제2의 대리전쟁을 가리키며, 그것은 제3의 대리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제3의 대리전쟁은 15절의 파니움 전투로 예표된 바와 같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표시한다.

16절은 일요일 법령이며,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14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과 관련된 마지막 사역이 성취된다. 다니엘 11장에서 가브리엘이 한 해석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거나 인치는 메시지를 나타낸다. 그 사실을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봉인이 풀린 그 예언, 곧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불리며, 요한계시록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린 것으로 지목하는 그 예언은 다니엘서의 특정한 본문이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마지막 날들에는 최종 예언이 인봉 해제되는 특정한 때가 있으니, 그 구절이 “때가 가까우니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있을 뿐 아니라 첫 장에서도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이백이십, 그러므로 이십이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상징하며, 셋째 천사의 마지막 사업, 곧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일은 열 처녀의 비유라는 예언적 맥락 안에서 성취된다. 마지막 날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2020년 7월 18일에 그들의 첫 번째 실망을 겪었고, 2001년에 인치는 과정이 시작된 지 이십이 년 후인 2023년 7월까지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 위에 흩어진 죽은 뼈들처럼 있었다. 그때에 “때가 가까웠”으며, 그 후 주께서 “광야의 소리”를 일으키셨으니, 그는 가브리엘에게서 그 기별을 받았고, 가브리엘은 그 기별을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으며,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다.

그 목소리는 이어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현재 60개가 넘는 언어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해져 왔다. 봉인이 풀린 예언의 일부, 곧 그 메시지는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다.

봉인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였다.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행적, 585.

'마지막 때와 관련된 다니엘의 예언의 일부'는 40절이다. 그것은 단순히 40절 전체가 아니라, 1989년의 '끝의 때' 이후이며 41절의 일요일법 이전에 해당하는 40절의 부분이다. 40절의 역사 중 그 절 자체에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의 일부로서 봉함되어 있었고, 2023년 7월부터는 보고 듣기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그 봉인이 풀려 오고 있다.

40절은 1989년 소련 붕괴 이후부터 41절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예언의 선들이 그 위에 놓여야 할 예언적 토대를 제공한다. '줄에 줄을 더하는' 방법론이 '늦은 비의 방법론'임을 보고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40절의 감추어진 역사를 볼 능력이 없고, 그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가브리엘이 요한과 다니엘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려고 온 바로 그 역사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베레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였다. 그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일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살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고, 신분 높은 그리스인 여자들도 있었으며,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진리가 제시될 때, 바르게 되고자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하도록 일깨움을 받게 된다. 이는 베레아에서 사도들의 수고를 따랐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진리를 전하는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과는 정반대인 많은 이들을 만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제시된 교리를 반박하지는 못하면서도,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를 살펴보기를 극도로 꺼리고, 설령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들은 자기들의 옛 신앙과 관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메시지를 들고 그의 사절들을 보내신 주께서는, 사람들이 그의 종들의 말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했던 아니든, 그들에게 제시된 빛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탐구하는 것이 의무다. 주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은 편견에 의해 좁아지지 않았고,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기꺼이 조사하고 받아들였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고귀한 베레아 사람들의 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며, 자신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을 거기에 기록된 것과 비교한다면, 오늘날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은 오류에서 진리로 바꾸려는 마음이 없고, 마지막 때의 듣기 좋은 꾸며낸 이야기들에 매달린다. 오류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만, 진리는 마음에 빛을 주고 영혼에 생명을 준다." 바울의 생애 스케치, 87, 88.